

CARD
NEWS

석유와 인물
윈스턴 처칠편

“
지배는
모험을 무릅쓰는 것에 대한
포상Prize이다”

* 이미지 출처 : 네이버

세계패권을 향한 영국과 독일의 군비강화 경쟁이 한창이었던 1911년, 당시 영국 해군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독일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중대한 결단에 직면합니다.





바로 영국 해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주력 전함들의 연료를

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결정이었죠.

석유는 석탄보다 부피를 덜 차지하면서도 열량이 높아
해군함정의 속력을 높일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
쓸 수 있는데다 작전 반경을 크게 개선 할 수 있었거든요.

하지만 **당시 영국에는 석유매장량이 없어서**
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.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
웨일즈산 석탄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
페르시아산 원유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
무엇보다 사람들은 충분한 양의 석유를 계속
공급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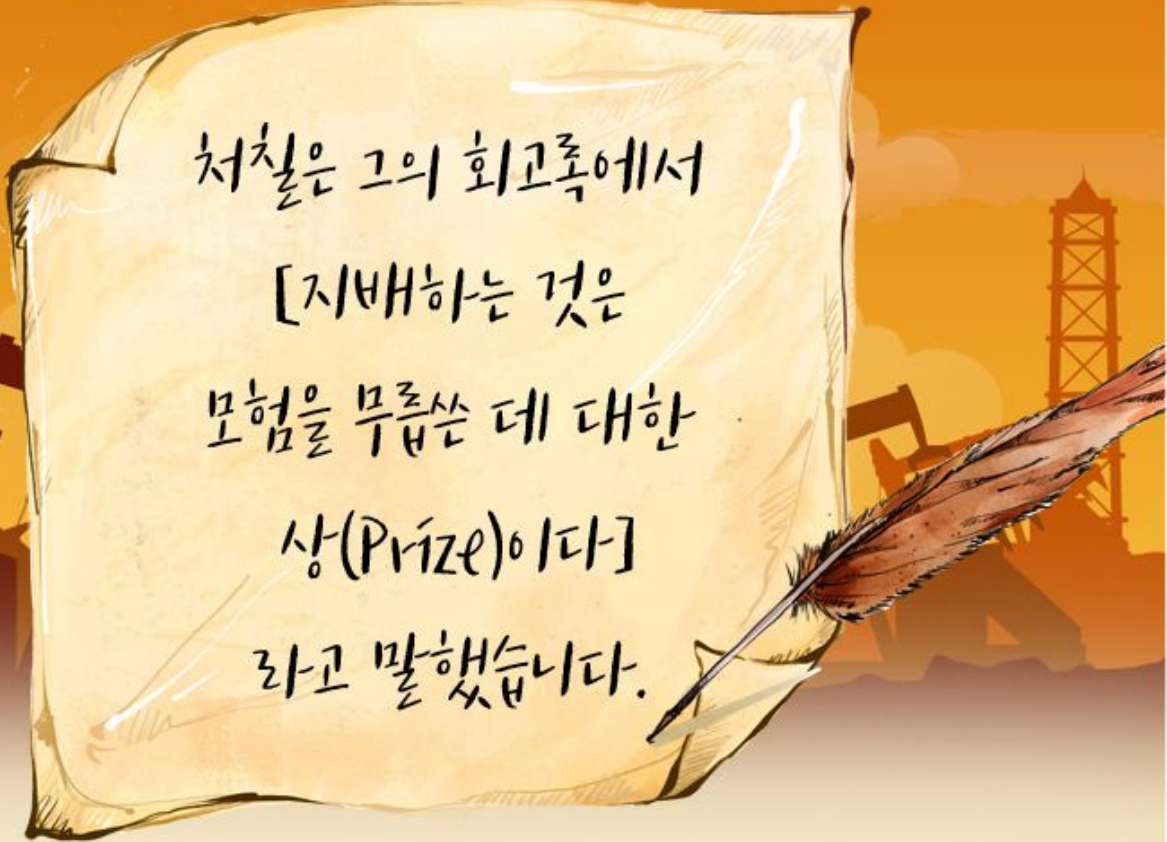




하지만 처칠은 페르시아(오늘날 이란) 지역에서
영국이 1908년 발견한 거대유전을 통한
안정적이고 확실한 석유공급 방안을 제안합니다.
결국 그는 의회의 찬성을 얻고
석유를 주 연료로 바꾸게 됩니다.



**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영국산 석탄을 포기하고
해군함정의 연료를 석유로 변경한 덕에
영국함대는 군사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,
영국해군은 막강한 화력과 전력으로 1차 세계대전의
승자 자리를 점할 수 있습니다.**



처칠은 그의 회고록에서
[지배하는 것은
모험을 무릅쓰는 데 대한
상(Prize)이다]
라고 말했습니다.

**석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영국해군의 힘과
효율성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킨 처칠의 파격적 승부수,
그야말로 패권은 모험에 대한 보상인 셈입니다.**